러시아, 시리아 타르투스항에 S-300 배치

등록 2016.10.05 10:03:10 | 수정 2016.12.28 17:43:57

【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 군이 시리아에 장거리 지대공 시스템 S-300를 추가 배치한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이고르 코나셴코 대변인은 "지중해 연안 해상에 있는 자국 군함과 시리아 타르투스항을 보호하기 위해 S-3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했고 해당 시스템이 이미 시리아로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27일 모스크바 외곽에 배치된 S-300 VM의 모습. 2016.10.05
【모스크바=AP/뉴시스】문예성 기자 =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장거리 지대공 시스템 S-300을 추가 배치한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이고르 코나셴코 대변인은 "지중해 인근 해상에 있는 러시아 군함과 시리아 타르투스항의 러시아 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S-300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했고 해당 시스템은 이미 시리아로 보내졌다"고 밝혔다.

코나센코 대변인은 "이 미사일 시스템은 순수한 방어용이며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시리아 내 S-300 미사일 시스템 배치와 관련해 서방국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고 역설했다.

러시아는 타르투스항에 유일한 해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시리아 해안도시 라타키아 외곽에 공군기지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11월 터키 전투기가 시리아 국경에서 자국 전폭기를 격추한 사건 뒤 라타키아 기지에 첨단 S-400 방공 시스템을 배치한 바 있다.

S-300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50㎞로 적군 전투기는 물론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렉트로스탈(러시아)=AP/뉴시스】러시아의 최신예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시리아 배치로 미국 당국자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러시아판 미사일 방어체계(MD)가 주목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일부 외신은 익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 러시아의 S-400는 누군가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는 무기체계로 미국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공중 작전에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07년 8월6일 러시아 엘렉트로스탈에 배치된 S-400 방공 미사일의 모습. 2015.11.26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이런 군사적 배치와 관련해 즉각 의구심을 드러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나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인다가 주장지만 이들 어느 세력도 S-300이 상대로 한 무기체계를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의 배치 목적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배치가 IS 공습을 주도하는 미군에게 위협이 되는지에 관련해 쿡 대변인은 "러시아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리아 내전 사태를 둘러싼 미·러 양국의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전날 양국은 시리아 휴전 연장 협상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